

아동학대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가족, 서로에게 소중한 이름되기



이 한 식
아토피·비염·성형외과 원장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사람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나 성장하는 동안 자신이 대우받은 만큼 남을 대하게 되고 아이들을 대하게 된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식은 부모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존중하지 않는 모습

얼마 전의 일이다. 제과점 앞 테이블에서 팥빙수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서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제 겨우 네 살 정도 되었을까

아이는 연신 제과점 안으로 들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노력 중이었다. 얼른 보기에 눈이 왕방울만하고 여간 귀여운 애가 아니었던만 그런 애를 아빠인 듯 보이는 사람이 '아이 새끼야, 안 나와?' 하면서 거칠게 다루는 것이었다. 놀라서 쳐다보는 나를 보고는 자기도 좀 당황스러운지 그냥 아이의 손을 잡고 모퉁이를 사라져 갔다.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흔히 본다. 아동 학대의 피해아동은 그가 장성하여 역시 아동학대를 저지른다. 바꾸어 말하면 아동을 학대하는 어른은 그 또한 학대 받으며 자란 사람이라는 말이다.

가족, 소중한 존재로 서로 배려해야

사람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나 성장하는 동안 자신이 그러한 존재로 대우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식이나 남을 그러한 존재로 대우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를 낳고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를 물려받는다. 아동 학대가 많은 사회는 혐오적 범죄와 원한적 살인이 많고 여기에 사회적 빈곤이 극에 달하면 '묻지마 살인' 이 나타난다.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대부분 지식인들은 '교육' 이 무너진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교육이 허물어진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가정이 무너진 까닭이다. 반드시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가정이 실업자가 되거나 가난에 못이겨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가정이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러한 일들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불가피한 것들이다.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온 세상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고 대우하지 않는 그 상태가 곧 가정이 파괴된 상태

이다. 실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자식은 부모 자신을 비추는 거울

필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국에 온전한 가정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부부지간에도 말하는 투나 태도가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비참할 지경이다.

이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도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를테면 큰 소리로 떠들거나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주저앉고 입에 낀 음식물을 손가락으로 제거한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무리 나이 어린 자기 자식일지라도 예의를 갖추어 그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우리가 혹 후진국이라고 얽잡아보는 중국인들도 어린아이와 말을 할 때 자신의 몸을 낮추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내 새끼' 라는 말을 없애야 한다. '내 새끼' 가 아니라 '하늘이 위탁한 양자' 임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정하든 못하든 우리 자신들은 그토록 고귀한 존재들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의 가치가 왕처럼 살다 가는 인생도 있고 거렁뱅이처럼 살다가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남을 또 그렇게 대한다. 아동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생각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이다.